



“모슬렘과 북한을 위한 기도의 헌신자 되라!”

“이슬람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2027년에서 2031년 사이에 무슬림이 기독교인의 숫자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맥가브란 박사가 말했다, 우리가 무슬림과 힌두들에게 편견 없이 다가서고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이들의 반응도 훨씬 호의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무슬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 GP선교회 미주대표 백운영 선교사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김넷(KIMNET)주최 제4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모슬렘과 북한을 기도로 품자는 주제 아래, 선교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다수 강사로 초청돼 선교의 원천은 기도로 열

제4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성황리 개최

한 선교 전략, 21세기 선교 흐름과 선교 전략, 평신도 및 특수 선교 동원 전략 등 다양한 선교 전략들이 소개됐다. 지난 18일 저녁집회 강사로 나선 한기홍 목사(김넷 회장)는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 4:14)라는 제목으로 성

인 추수의 때를 구별하여 죽어 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의 교량 역할을 하고, 모슬렘, 공산권을 위한 특수선교를 위하여, 또한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이민교회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동성애와 마약, 폭력 등으로 몰들어가는 미국에서 한인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여 열방의 영적 재부흥을 위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한기홍 목사는 “존 파이퍼 목사의 말처럼 하나님이 빠진 아메리칸 드림(Ameri-

can Dream)은 저주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킹덤(Kingdom Dream)을 꿈꾸며 열방을 구하는 선교를 위해 결단하라”고 전했다. 기도성회 성경강해 시간에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 김넷 이사), 정민용 목사(CFC담임, 김넷 이사), 최경욱 목사(모잠비카선교교회)가 전했다. 이번 제4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는 GMI(은혜한인교회)에서 주관하고 남가주 선교협의회, 순회선교단, 인터콥, 컴미션, 썬미니스트리, GP USA, Silk Wave, SON, UBF 선교회들이 공동주관했다. (지재일 기자)

‘이민신학’ 정립위해 목회자·신학자들 한 자리에

제2회 이민신학 심포지움이 ‘성서와 코리아-아메리칸 이민교회’를 주제로, 11월 18일(목)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정인수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목사)와 북미주한인성서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움은 미주 이민교회를 위한 이민신학 정립에 대한 열띤 토론시간과 목회자들을 위한 이민목회 전략 세미나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된다. 지난 15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에서 한기홍 목사는 “미주 이민교회 역사 10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이민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며, “본질적인 복음을 바탕으로 합과 동시에 미주 이민교회의 독특한 문화적,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이민신학이 하루빨리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철 목사는 “심포지움 첫째 날 18일에는 김세운 박사(폴리신



‘제3차 로잔 세계 복음화대회’ 10월 17일 오후 7시(이하 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막한 제 3차 로잔 세계 복음화대회가 2백여 국가 4천여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24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은 로잔대회 총재 더그 버드셀(우). (순현정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추계부흥성회

2010년 10월 12~14일 (3일간)

주제 : 주여!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 12일(금) 7:30분 본문 : 출30:34-36 / 제목 : 하나님 대접받는 삶
- 13일(토) 7:30분 본문 : 사60:1-5 / 제목 : 축복을 만드는 믿음
- 14일(주일) 11:00분 본문 : 시37:4 / 제목 : 소원을 이루는 믿음

장소 : 세계성경장로교회 주소 :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310) 793-2297

창립기념을 '선교 열정' 회복하는 기회로!



세계 19개국 54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총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월 7일~14일까지 개최된 '두루 사랑(Thorough Love)' 선교대회를 통

7일(목) 환영예배를 시작으로 매일 새벽마다 각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말씀을 증거했으며 특별히 8일~9일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선교집회로 모였다. 선교보고 겸 간증이 이어진 이날은 선교를 위

력지역별 식탁교제를 나누며 성도들이 선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11일~13일까지는 선교사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창조과학 탐사를 진행했다.

14일(목) 선교사와 가족들의 환송예배로 모든 선교대회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한 총현선교교회는 "새 성전의 시대를 맞아 선교사들과 더욱 가까이 선교전략을 나누며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에 다시금 불을 붙이는 전기가 됐다"고 전했다.

민중기 목사는 "하나님 안의 세 인격이 지극한 사랑 속에 있고, 이 사랑은 온 피조물로 흘러 넘쳐, 사람에게, 자연 속에 두루 퍼지는 사랑"이라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두루 사랑을 사명으로 받아 행한다"고 전했다.

민중기 목사는 선교대회의 주제 '두루 사랑'을 Thorough 라는 단어철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t'는 'totality', 즉 전체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인(全人, whole person)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구원, 의료, 학교, 또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총체적 사랑을 추구한다.

'h'는 "harmony", 즉 조화이다. 영혼과 육체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의료선교와 학교선교 및 복음 전파가 나누어지지 않는다. 'o'로 시작되는 'orthodox', 즉 정통 신앙이다. 우리는 선교사님에게

특정 교파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거나 교파의 이식을 설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통적인 건강한 신앙이면 선교 현장에 유익하게 협조하고 도움을 받도록 한다. 'r'로 시작하는 'radicality' 즉 근본성(根本性)이다. 이는 과격함보다는 뿌리를 건드리고 바꾸는 행위이다. 복음 선교는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행위이다. 다시 'o'로 시작하는 'orthopraxis', 즉 바른 행동이다.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는 것으로 열매 맺는다. 선교의 좋은 열매는 행동하는 사랑이다.

'u'로 시작하는 'uprightness', 즉 올곧음이다. 이는 선교현장에서 도덕적 탁월성과 윤리적 올곧음을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것이다. 'g'로 시작하는 'globalism', 즉 세계화이다. 이는 우리의 선교사역이 가장 지방적인 특성을 반영하여야만 하지만, 우리가 지구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계의 경향과 사조에서 소외되지 않는 소통의 선교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h'로 시작하는 'humbleness', 즉 겸허함이다. 이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랑의 선교사가 됨으로 이전 시대의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두루 사랑의 선교는 이러한 높고 조화로운 이상을 꿈꾸고 있다.

(박삼미 기자)

가정과 교회 한인사회의 밑받침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썩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수고한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재미기독교여성협의회(회장 최계순)의 '밑받침' 수상대회가 지난 16일 LA 한인침례교회에서 개최됐다. 24번째 밑받침 주인공은 '훌륭한 어머니상' 이병덕 권사(그레이스교회), '희생의 남편상' 홍미현 장로(나성영락교회), '특수선교 부문' 켄 안 선교사(GMIT), '사회부문' 원창호 부사장(힐리웃장로병원), '자랑스런 한국인' 김봉건 회장(하나로커뮤니티교회) 등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살피고 슬하의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냈다.

또한 특수선교 부문 켄 안 선교사(GMIT)는 미주 최초로 IT선교를 시작, IT와 관련된 선교사역에 새로운 지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부문 원창호 부사장은 방송 언론인으로써 교포사회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우한 이우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한 바 있다.

자랑스런 한국인의 김봉건 회장은 6.25전쟁시 다수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월남파병 정책실무 담당을 역임했으며 이민 후 미국토방위국 지원사령부 소속 준장으로 정식 임명되었다.

재미기독교여성협의회 최계순 회장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가정과 사회를 위해



(앞줄 왼쪽부터)김봉건의 권사, 김봉건 회장, 이병덕 권사, 홍미현 장로, 켄안 선교사, 원창호 부사장. ©지재일 기자

5명이다. 훌륭한 어머니상 이병덕 권사는 결혼 전과 후에도 꾸준한 전도와 선교로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했으며, 2남 2녀를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성장시켰으며 한국의 맹인개안수술을 목적으로 한 백합실로암선교회를 설립, 힐리스 사역 등 이웃사랑에도 앞장섰다.

이어 희생의 남편상 홍미현 장로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고 침해까지 않고 있는 아내를 어려운 생활

밑받침의 역할을 하신 분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자리"라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기어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밑받침 수상대회는 세계비전교회 김재연 목사가 설교했으며, 변영의 목사(벤엘장로교회)가 축사를, 류당열 목사(대양장로교회)가 축하 연회를 위한 기도를 했다. (박삼미 기자)

총현선교교회 선교사와 가족 32명 초청 격려, 성도들은 비전 새롭게

해 그동안 총현선교교회에서 파송된 32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모여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 보안이 중요한 국가의 선교소식을 자세히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다. 또한 대화기간 중 주말에는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협

ORT 대학에서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1. 기초영어중, 고급 8개월 코스, 컴퓨터 학비 전액 보조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3. 아카운딩 대학 졸업장, 자격증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대학 졸업장, 자격증
4. 약사 보조직 / 의사 보조직 / 컴퓨터 그래픽 & 데스크탑 퍼블리싱
5. 유학생 1-20 발행 (소셜번호, 워킹퍼미트 도와 드림)
6. 졸업후 직업 추천 헤드라인 (유태계 ORT대학)

*영주권자이상, 저소득층 유자격자

< 상담필수예약 >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버스표
전액 보조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일서+La Jolla, 버스 20번)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4.99/월

지금 가입하시면,
한국 가족들이 국내 통화하듯 부담 없이 미국으로 전화하는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더 이상 국제전화 플랜에 별도로 가입하거나
전화카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패밀리 알뜰 플랜

10월 16일 ~ 10월 31일 가입자에 한함

- 1 미국 전화번호는 물론 한국 전화번호 무료 제공!
초저가 요금으로
- 2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 3 기존 전화기, 전화번호 그대로!
초저가 요금으로
- 4 아이토크글로벌 이용 가능!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국제전화
- 5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이용
- 6 아이토크비비 고객간 무료통화

30일 환불보장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한인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9시)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캐나다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 개통비(\$29.99) 면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www.Korea.iTalkBB.com

가입문의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얻으세요!

♥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향기서 대신 안연필과 건펜만 온라인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남성수 목사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거룩한 성도여야”

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다. 지난 30여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이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남성수 목사의 소감이다. 긴 역사에 비해 짧은 3년 반 정도의 목회기간에 대한 소감은 정직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인지 우리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목사로서 목회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지치게 되고 또 열심히 한만큼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부터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라는 초점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된 것에는 기도의 힘이 컸다. 남성수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한 달 반 동안 밥 먹지는 일 외에는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했다. 차츰 동참하는 성도들이 생겼고 목사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들도 생겼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하루에 세 번씩 자원하여 순번을 정해 기도의 끈이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교회는 ‘다니엘의 기도’라고 명하고 기도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 주셨고, 또한 깨달음도 주셨어요. 어떤 큰 과업을 이루기 이전에 ‘남성수’라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인지...하나님은 그로부터 물으셨고 원하셨어요. 그리

고 알게 되었죠. 이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모두 물으신다는 것です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며 섬기는지 말입니다.”

30년이 되었든 300년이 되었든, 신앙의 원리는 같았다. 우리 맘속에 구원의 확신과 사랑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열심히 내는 것은 교회 와서 자신을 해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고 그때부터 설교를 통해 사역을 통해 성도들과 나누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

게 감격하여 우는 이들이 예배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을 시작했다. 경기불황으로 성도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도 교회의 재정이 줄지 않고 오히려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은 성도 개개인에게 일어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배와 함께 또 다른 변화는 소그룹에서도 일어났다. 교제 중심의 전통적인 구역조직에서 ‘동산’이라는 소그룹 사역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구역조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성도들로부터 남성수 목사의 소그룹 목회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져, 소그룹 사

역이 있었다. 바로 이 소그룹에서 예배처럼 구원의 감격과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변화의 수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의 ‘동산’에는 저마다 소그룹의 정체성을 알리는 ‘동산’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 모든 동산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 선교와 영혼구원에 있다. 각각의 동산은 결연하고 있는 선교지 및 선교사들과 직접 교류하며 지원한다. 주일예배마다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가 하면 동산 모임 자체적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가지요. 선교지와 성도들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교지와 함께 호흡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그 안에서 받은 은혜의 간증이 넘쳐납니다.”

기세를 몰아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는 2011년 영혼구원에 교회의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마치 돋보기로 태양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듯 흩어진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켜 영혼구원의 역사를 불같이 일으킬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필요 없는 것이면 과감히 버릴 것입니다. 한 번의 행사가 아닌 그런 역사를 이어갈 원년으로 삼는 것이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는 ‘비전 21’을 뜻대로 삼았다. 제자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고, 소그룹 사역으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에 ‘비전 21’이다. “많은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소그룹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것에 잘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앞서 구원의 확신과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박상미 기자〉

32주년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남성수 목사



교회 창립을 맞아 새롭게 임직한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과 함께.

니 성도들은 새로운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되더군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순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역에 대한 세미나와 회의 등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구역과 소그룹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되었는데 기존에서 30% 정도 변화되

므로도 기도하고 후원한다.

“매 주일예배마다 선교사들의 편지를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동산들에서 결연한 선교사님들이 한번 방문이라도 하면 가족처럼 대하고 섬기고, 또한 그분들은 큰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인지 물어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방법부터 알아야”

“부흥은 구원의 확신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부터”

교회가 설립된 지 30년 정도가 된 곳에 40대의 젊은 목사가 부임했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성도들의 삶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이곳에 젊은 목사의 부임은 변화와 부흥이라는 과제와 또한 기대로 가득 했을 것이다. 고스란히 목회적 부담을 떠안은 젊은 목사는 열정에 충만하여 휴가를 보낼 겨를도 없이 쉬 없이 달렸다. 주님의 나라와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지쳐있는 목사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다가와 물으셨다.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인지를.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

메디케어 수혜자 들게 알립니다!!

CA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 치과 •처방약 •한방침술
- 헬스클럽 멤버십 •해외여행 응급시 혜택 •교통편 제공 등

☎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ORT “우수한 교육, 바로 취업할 수 있어 좋아요”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교육으로 한인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ORT칼리지(Original Repair Technic College: 이하 ORT)가 이번에는 우수한 직업교

육과 취업연계 시스템으로 고교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ORT칼리지는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어시스턴트, 컴퓨터 그래픽, 데스크탑 퍼블리싱,



한인담당 플라워 박

간에 달성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정부가 학비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며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우선은 시도해 보라”고 적극 추천했다.

ORT칼리지는 이 밖에도 직업 훈련 과정의 학생들에게 1-20 비자를 발행해 주며 소셜 번호, 워킹 퍼밋, 학생버스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ORT칼리지 한국인 담당 플라워 박씨는 “학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포기한 채 방황하는 고등학생들이 적극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323-556-5386, 213-434-8128

〈박상미 기자〉

한인사회 고교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인기

육과 취업연계 시스템으로 고교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ORT칼리지는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어시스턴트, 컴퓨터 그래픽, 데스크탑 퍼블리싱,

들을 위한 취업연계 시스템은 매년 졸업생 중 90%이상이 취업에 성공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올 초 메디컬 어시스턴트 과정에 입학한 자녀를 둔 클라라 씨는 “취업위주의 기술교육을 짧은 기

문인으로 가는 길, 미주개혁 대학

문학수업 : 매주 월요일 오전 10:30

문예창작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시인, 소설, 수필가로 만들어 드립니다.
절차를 밟아 문학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미주개혁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문학 수업을 받으십시오.
학위와 등단을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 햇볕 문학상 수상 작가인 박요한 목사가 강의 및 개인 지도를 합니다.

시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윗은 시인이었다.
다윗은 천수를 누리고 은혜가운데 전성시대를 열었다.
당신의 마지막 길은 "문학으로의 등단이다"

미주개혁교회
열린 예배에서
영광의 시대를
다시 찾자
주일 아침 10시 30분

미주개혁 신학대학교
The Reformed University

우편주소 :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 학교주소 :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
Toll Free: 1-800-281-2123 /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총장 신학박사 : 박요한 (Rev. John Park Ph.D)

[새벽강단 16] 대흥장로교회 새벽예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 맛보는 특권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은 남가주 한인 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새로운 성경책(개역개정판)을 사용하기로 한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는 그간 보았던 손때 묻은 성경책으로 '성경통독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흥장로교회 성경통독 새벽기도회 진행해

습니다. 성전은 화려한 장식이나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형벌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귀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되돌아보면 고통과 파멸과 재앙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구원이라는 여호와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택한 백성인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지

가 앞서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겔 44장은 성전출입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성전에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선악을 가르치지 않고 함께 타락하고 실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셨지만, 제사장 사독의 후손만큼은 새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독은 솔로몬 왕을 충실히 섬겼으며 여호와께 충성했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

다. 교회에서 일할 수 있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자는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은 단지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긍정적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충성은 '온전히 쫓았다'고 표현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것이 바로 이런 충성입니다. 긍정적인 모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긍정적으로 주의 뜻이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 45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별을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을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계획은 여호와와의 영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을 때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것은 주의 전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대흥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성전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임재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



권영국 목사

(박삼미 기자)



곽선희 목사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담임 강진웅 목사) 창립기념 부흥회가 지난 15일~17일 곽선희 목사(소망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해 개최됐다. 첫날 곽선희 목사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본문: 행14:8~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솔로몬의 지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기에 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들으면 나도 모르게 변화 된다'며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아닌 말씀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원 얻을 만한 믿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말씀을 완전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일어나 걷게 된 것'이라며 "그것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전했다. 곽선희 목사는 3일간 총 여섯 번의 부흥회를 인도하며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성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창립기념 부흥회 열려

속 '듣는 마음'에 대해 강조했다. '지혜'의 히브리어 어원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한 곽선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축복이며, 또한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곽선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그는 "내 의지와 실천 그 자체는 이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루스드라에 나서서부터 앓은뱅이 된 자가 바울의 말을 주목하여 듣다가 바울의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을 소개하며 곽 목사는 "앓은뱅이는 사도바울의 말을 들으면 서(앓은뱅이라는) 과거와 현재를

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했다.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는 지난 6월 200여명의 성도들과 탄생예배를 드린 이래 예배당 마련 및 공사를 위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참여한 가운데 이번 창립기념 부흥회를 개최했다. 주소: 1069 S. La Brea Ave. LA, CA90019 문의: (323) 930-1088 (박삼미 기자)

뜸·침·한약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무기"

미주기독교한의사협회(회장 박동우)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2010 의료선교 컨퍼런스'를 최근 LA 사문새길교회에서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 헌신예배 설교를 전한 정희욱 목사는 참석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선교를 통한 전도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의술을 통해 많은 이들의 병을 낫게 하

며, 말씀과 기도로 환자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40여 년간 본인 스스로 의사로서 살아온 정 목사는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의술로 못 고치는 병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어 간증했다.

정 목사는 "무엇보다 뜸·침·한약보다도 오히려 심령의 골수를 쫓아내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우 회장은 "창립 10주년이기에 아이티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의과 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재일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usajyk@gmail.com

RADIO SEOUL '홈 스위트 홈'의 진행자!, 사랑을 실천하는,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노형건의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대행진'

오페라 캘리포니아의 그 열정으로!
홈 스위트 홈의 사랑과 실천으로!
지구촌의 죽어가는 아동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나눔, 감동의 찬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생명 살리기 주일예배 순회 일정

- 9월 19일(주일) 오후 12:30 - 새소망교회 · 2017 West Olympic Blvd, L.A, CA 90006 · (213)422-6966
- 10월 3일(주일) 오전 10:30 - 리빙워드 연합교회 · 1494 California Cir, Milpitas CA 95035 · (408)934-3600
- 10월 10일(주일) 오전 10:30 - 발렌시아 새누리 교회 · 25133 Ave, Tibbitts #1 San Clarita, CA 91355 · (661)964-8205
- 11월 21일(주일) 오전 1:30 -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 72700 Fred Waring Dr, Palm Desrt, CA 92260 · (760)636-2675
- 11월 28일(주일) 오전 10:30 - 기쁨의 교회 · 3912 Wilshire Blvd, LA, CA 90010 · (213)351-9975
- 12월 12일(주일) 오전 11:00 - 천성 장로교회 · 6910 Potrero Ave, El Cerrito, CA 94530 · (510) 215-9800
- 12월 12일(주일) 오후 1:00 - 시온 장로교회 · 980 Stannage Ave Albany CA 94706 · (510) 912-1955
- 2011년 7월17,18(토,주일) 오후 7:30 - 오페라 CA 선교오페라단 · 1046 S. Victoria Ave, L.A, CA 90019 · (323)936-2567

노형건
현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현 사랑여성합창단 지휘자
현 AM1650 라디오서울 부국장 및 홈 스위트 홈 진행자
현 Opera California 선교오페라단 단장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M.M〉
〈미국 버지니아 주 Voice Competition First place〉
〈미국 버지니아 주 Everett college 종교음악과 교수 역임〉
〈국립 합창단, 김자경 오페라단 단원 역임〉
〈워싱턴 오페라 단원 역임〉
〈미주예총 1994년 올해의 예술인 상 수상〉
〈2005 World Cultural & Sports Foundation Multi-Cultural & Musical Award 수상〉

초청 문의전화
323-574-2747

www.rohyungkun.net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용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역으로 지구촌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 선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 심어줘, 선교대회 후속 프로그램

2010 남침례교 선교부 북가주 선교포럼 개최

2010 남침례교 선교부 북가주 선교포럼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강사는 신기환 목사 (IMB 선교전략가), 김송식 목사 (가주총회 교회개혁 전략가), 김화영 사모 (가주총회 여성교회 한인컨설턴트), 김바울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담임), 토니 리 선교사 (IMB 선교사 서부지역 동원 담당), 박미경 사모 (어린이 선교학교 Mission Rangers)이다.

28일(주일) 저녁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되며 세계선교침례교회 (62

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에서, 29일(월)은 오전 11시에 드림교회 (2420 Foothill Blvd, Los Altos, CA 94024)에서 열린다. 양일간 열리는 이번 강의는 저녁 10시 이후까지 계속된다.

특강 및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제는 선교 파트너 찾기, 커뮤니티 전도, 교회의 선교와 소그룹 역할, 미전도 종족 입양과 교회, 교회의 중장기 선교전략 세우기, 어린이 선교 및 동참, 비즈니스 사업선교 등 다양하다.

북가주남침례교회한인교회협의회(회장 홍흥산 목사) 주최, 협의회 선교분과위원회 (위원장 고상환 목사)주관으로 열리며 대상은 지역 교회 담임목사님, 사모님, 선교부장 및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다. 등록비는 20불이다.

이번 선포포럼은 북가주 지역에도 그 동안 많은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개최되어 왔지만 아직도 선교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다 폭넓은 선교 교육에 대한 필요를 채우고자 함에

있다. 북가주 한인남침례교 선교분과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북가주선교대회 행사를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구체적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남침례교 선교기관인 IMB를 통한 선교의 기회와 전략들을 지역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담당자들에게 소개하고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등록방법: 박후일 전도사(드림교회) / 408-470-0486
(임형진 기자)

한국 교회는, 한국과 세계의 '희망'이다

한국 예수전도단 설립자이자, 70년대 청년 선교 부흥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오대원 목사(David E.Ross)가 한국 교회에 '희망'을 내비쳤다.

오대원 목사는 "현재 한국 교회가 예전에 비해 걸음으로 보기에 성장률이 하락하고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갈수록 말

것"이라며 교회가 전도와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했다.

한편 오 목사는 중국 교회가 빠르게 부상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5-60년 넘도록 강한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연단된 신앙이 나라를 변화 시키고 세계에 쓰임

예수전도단 설립자 오대원 목사 "말씀 사랑하는 성도 늘어"



벨뷰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오대원 목사 © Brian Kim

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

아지고 선교의 열정 역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며 "교회는 한국을 지탱하고 세우는 근본 힘이 될 것이며,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와 교회

의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서 "한국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도덕적 어려움이 생기면서도, 교회는 계속 한국을 정화하고 발전

을 유도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본국 교회를 향해 "더욱 말씀을 붙들고 목

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오 목사는 또 "걸음으로 보이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열매가 아니다. 부흥과 열매는, 믿지 않는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것

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받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지난 15일 워싱턴주 벨뷰 사랑의 교회(담임 조영훈 목사) 금요 철야 집회 강사로 나선 오대원 목사는 말씀 목상과,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성도들에게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세속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기울이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대원 목사는 현재 워싱턴주 시애틀 북쪽 문로에 위치한 안디옥 선교 훈련원(AIIM : Antio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inistries)의 선교 센터(성령의 샘)에서 세계 선교와 특히 북한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성시화운동본부본부, 두번째 지역사회 거리청소



산호세 성시화운동본부(회장 최영학목사)는 16일(토)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거리청소에 나섰다.

한인사회 적극 참여, 실제적 운동으로 변화 되도록 노력

산호세 성시화운동본부(회장 최영학목사)는 16일(토)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거리청소에 나섰다. 장소는 실리콘밸리 엘카미노 스트리트 주변 지역이다.

이번 거리청소에 산호세 한인사회도 함께 거들었다. 산호세 성시화운동본부 최영학 회장, 실리콘밸리 노인선교회 유영준 목사, 산호세지역 교회협의회장 김근제 목사, 산타클라라 한미노인봉사회 성만평 회

장, 실리콘밸리한인회 김호빈 회장, 택장 변호사 등 많은 교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엘카미노 스트리트선상의 교포시장에서 출발해 한국마켓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길가의 휴지나 오물을 수거했다.

이번 행사 목적은 산호세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한인들이 자신이 먼저 성숙한 시민으로 살고, 타인종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깨끗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행사를 주관한 최영학 목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인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한인들의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임형진 기자)

서북미 한인 침례교회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회장으로 시애틀 제일침례교회 유혁동 목사 선출

서북미 한인 침례교회협의회는 지난 18일 시애틀 제일침례교회(유혁동목사님)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위원단을 선출했다.

한 해 동안 서북미 한인 침례교회를 이끌 신임위원단으로는 회장에 유혁동 목사, 부회장에 김정오 목사(사랑침례교회), 총무에 김종인 목사(새시온침례교회)가 선출됐고, 서기와 회계에는 각각 임성택 목사(아름다운 교회), 장영준 목사(시애틀 밀알선교단)가 한 해 더 섬기기로 결정됐다. 유혁동 신임 회장은 "소수 민족 교회 개혁을 위해 퓨젯사운드 침례교회협의회와

협력하고, 한인 목회자 부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내년 2월 중에는 미얀마 북쪽주의 침례교회와 협약을 맺고 동반자적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회무처리시간에는 한마음 침례교회(담임 이현 목사)를 준회원으로서 승인하고 1년간의 기간을 심의한 후, 정회원 승격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설교는 직전 회장이었던 정용교 목사가 '나그네 정신'(히 11:13-16절)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정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할 것 △당장의 유익을 취하지 말고 더 높이, 더 멀리 바라 볼 것을 당부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신구임원 교체 직후 장영준 목사, 김종인 목사, 임성택 목사, 김정오 목사, 유혁동 목사, 정용교 목사, 최모세 목사, 박성화 목사 © 김브라이언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미국 위한 기도 집회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하라”



청교도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미국이 그 기초를 잃고 흔들리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3년 6명의 한인 리더들이 모여 한인 1.5세, 2세대가 미국을 영적, 도덕적으로 대각성 시키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민자로서 미국이 이뤄놓은 자유와 혜택을 누리지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신앙으로 재건하는 주인을 자처하는 이 운동은 자마(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이 비전을 처음 받은 사람은 김춘근 교수. 그는 경희대 정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남가주의 명문 사립대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미국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페퍼디안대학의 교수 생활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지만 동시에 37세의 나이에 간경화, 간염으로 죽음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극적인 회개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알라스카주립대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최우수 교수상을 받았고 알라스카주지사 경제경제무역 특별고문으로 일하며 3백%의 수출 증가를 이루어 주정부로부터 경제개발공헌특별상을 받았다. 그러던 그에게 1985년 하나님은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 비전에 동지들이 생기면서 1993년 JAMA가 시작됐다. 2년동안 수만마일을 넘는 거리를 차로 이동하며 김교수가 자마를 홍보한 결과, 이 비전에 동참하는 영어권 청소년, 대학생들이 늘어났다.

첫 대각성 집회에 2천5백명이 참가한 이후, 지난 2008년 대회에는 6천5백명이 참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와 더불어 리더십대회, 전국중보기도회 등으로 미국의 회개와 각성 운동을 벌여 왔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자마가 급성장한 데에는 자마가 가진 도전적인 비전이 영어권 청년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파라체트 운동을 거부하고 지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돕는 역

할을 자마가 감당하면서 1세로 구성된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은 것도 한 이유였다.

현재 자마와 김춘근 장로는 미국을 위한 특별 기도 순회 집회를 열고 있다.

김 장로가 차로 2만6천 마일을 이동하며 전국에서 기도회를 여는 형식이다.

지금까지 LA, 뉴욕에서 집회가 있었고 테네시, 인디애나, 미주리, 캔사스, 미네소타, 위스콘신까지 왔으며 지난 10월 8일에는 일리노이주립대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인근의 샴페인어바나한인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 기도회가 시카고 지역에서는 시카고지역한인교회협의회와 시카고교역자회의 공동 주관으로 10월 24일 주일 오후 5시 아가페장로교회(308 E. Camp McDonald Rd., Prospect Hts., IL 60070 847.788.9990)에서 열린다. 김춘근 장로가 “각성(Awakening), 회개(Repentance), 부흥(Revival)”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남편의 알코올 중독 치료되니 아내가 우울증



많은 한인들이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다. 작게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부터 시작해 심하면 약물 남용, 중독, 범죄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 문제가 표출된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한 세미나가 새소망선교회 주최로 열렸다.

강사는 청소년사역전문단체인 LA햇빛재단의 대표 김영일 목사였다. 김 목사는 마약 중독,

을 꺼내 들었다. 가정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 그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는 사람, 그것을 애써 무시하려는 사람, 그 문제에 희생되는 사람 등으로 가정 나름 문제를 소화하는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제의 원인은 개개인에게 있

는 게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가정에 잠재된 것이며 다만 가장 연약한 이, 대부분의 경우 자녀

10월 16일, 17일 양일에 걸쳐 김영일 목사의 세미나가 영광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가족 간의 관계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만 가정의 문제가 완화, 혹은 해소되어 갈 수 있다. 김 목사는 “타락한 이래, 인류는 사단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유1:6)”면서 “모든 가족이 창조시 자기에 부여된 자리를 찾아 갈 때만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LA햇빛재단 김영일 목사 가정 치유 세미나

갱 청소년 선도단체인 LA나눔선교회의 공동대표로 섬긴 바 있으며 연세대, 남가주대학교(USC)를 졸업한 후, 탈북신학교에서 M.Div.를 마치고 목사가 돼 현재까지 청소년 선도 사역을 하고 있다.

를 통해 터져 나오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해소되고 나면,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가정은 또 다른 균형점을 찾아 가는 진통 단계에 들어간다. 마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니코틴이 공급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다가 가정의 문제는 말씀을 부리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이 상호간에 가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적절한 예를 들어 보자.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있었다. 아내는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욕하면서 아침에 해장국을 끓이고 보살피 주는 삶을 반복했다. 그러다 남편이 예수를 믿고 술을 끊어 버렸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돌봐 줄 필요가 없어진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버렸다.

김 목사는 경험주의 가정치료 전문가들의 가족균형이론

을 통해 터져 나오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해소되고 나면,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가정은 또 다른 균형점을 찾아 가는 진통 단계에 들어간다. 마치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니코틴이 공급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게다가 가정의 문제는 말씀을 부리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이 상호간에 가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적절한 예를 들어 보자.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있었다. 아내는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욕하면서 아침에 해장국을 끓이고 보살피 주는 삶을 반복했다. 그러다 남편이 예수를 믿고 술을 끊어 버렸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을 돌봐 줄 필요가 없어진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버렸다.

김 목사는 경험주의 가정치료 전문가들의 가족균형이론

김 목사는 자녀들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법, 사랑을 가르칠 것을 당부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깨닫는 것이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찾는 방법이란 것이다. 또 그는 부모로서 부모의 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부모역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갖춰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새소망선교회(대표 박윤경 전도사)는 약물남용과 사회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청소년과 가정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847-873-2974

(김준형 기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True Worshipers 12



True Worshipers 12의 집회 사진 © TW12 웹사이트

신령과 진정의 참된 예배자를 꿈꾸는 “True Worshipers 12”가 시카고를 찾아 온다.

TW12는 전세계에 퍼져있는 4천 3백여 이민교회를 찬양과 예배로 섬기겠다는 비전을 갖고 2003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한인교회를 시작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대표 추길호 목사는 한국 예수전도단 찬양사역 책임자로 8년, 분당

할렐루야교회 협력선교사로 4년을 섬긴 후 미국으로와 버지니아 지구촌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맡았다.

TW12를 섬기는 멤버는 전 미주에 40명이 있다. 클래식 악기 연주자와 기타, 드럼, 베이스, 또한 보컬리스트, 음향 엔지니어들이다. 이들은 줄리어드, 피바디, 버클리 등 유명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며 전 미주에 흩어져 있다가 집회 일정이 잡히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학생들이 20여명으

로 팀을 이뤄 섬기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10월 27일 오후 8시 가나안교회, 28일 오후 8시 엑스더스교회, 29일

오후 8시 한미교회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다. 30일 오전 6시에는 시카고한인교회이다.

(김준형 기자)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충분한 워런터기 / 고장시 지정 정비소-통한수리 (80%DC)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로스엔젤레스
교역자협의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코(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비영리단체 등록번호 #2198779
미연방정부 면세번호(Federal Tax I.D. Number)
#95-4822611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로스엔젤레스교역자협의회

The Council Korean Churches in Los Angeles
회장 : 표세흥 목사, 증경회장 류당열 목사 ☎ (213) 718-1512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10월 25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웹스턴)

미국장로교(PCUSA) 동북부대회장에 양춘길 목사



직전 회장 스투어트 부시 목사와 양춘길 목사가 악수하고 있다.

10년 만의 한인 대회장 1년간 23만 성도 대표

양춘길 목사가 지난 16일 미국장로교(PCUSA) 동북부대회(Northeast Synod) 대회장에 취임했다. 김득해 목사가 한인으로서 첫 대회장직을 맡은지 10년 만에 한인이 대회장이 됐다.

미국장로교 동북부 대회에는 뉴욕을 포함한 8개 주 22개 노회 1200여개 교회 23만여 성도들이 있다. 대회장 양춘길 목사는 앞으로 1년간 이들을 대표한다. 미국장로교 동북부 대회는 16, 17일 양일간 스토니포인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총회를 가졌다. 총회 시

작과 함께 대회장으로 취임한 양춘길 목사가 총회를 인도했다. 이외에 각 노회들이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과 행정을 지원했으며 지역 사회 봉사, 인권 등에 대한 노회의 의견을 종합해 UN 등에 제안한다. 양 목사는 "한인교회가 이제 한인 울타리를 벗어나 역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 이 일에 직접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세가 줄어들어 침체되어 있고 낙심하고 있는 주류 교회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복음의 힘찬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소망을 한국교회가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양춘길 목사를 대회장으로 적극 추천한 김득해 목사 역

시 같은 생각이다. 한국교회의 생동력이 주류 교회를 영적으로 깨울 수 있으리라는 비전을 대회 내에 설명해 한인 목사가 대회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썼다. 양 목사는 다민족 연합 예배를 시작으로 비전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는 지난 4년간 성령강림주일마다 타민족 교회를 초청, 연합 예배를 가져왔다.

나아가서는 'Love NJ'라는 이름으로 인종을 초월한 복음화 운동을 펼쳐 뉴저지를 복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Love NJ 운동에는 다민족 연합 집회와 기도회는 물론 리더를 길러 작은 교회에 인재가 파송하는 일까지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양 목사는 다민족이 하나되어 세계화를 이뤄나가고 소수민족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에 주류 교회와 소수 민족 교회를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한인 교회는 그동안 주류 교회로부터 인정 받았기 때문에 주류 교회와 소수 민족 교회 사이 디딤돌로 쓰일 수 있다.

양춘길 목사는 "작은 일이라도 대회 내 교회들과 협력해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주이 기자>

신임회장 이해갑 목사 부회장 문정주 목사 선출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 제40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이해갑 목사 부회장 문정주 목사 선출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회장 박건철 목사) 제40회 정기총회가 10월 18일(월) 애난데일 소재 Wakefield Park 축구장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홍효채 목사의 사회, 김성도 목사(워싱턴교협 회)의 기도, 이성수 목사(워싱턴 교역자회 직전회장)의 설교, 이해갑 목사의 광고, 김양일 목사(워

싱턴교협 증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수 목사는 요15장 13-15절을 인용,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친구,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일 것이다"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닮아 가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2부 정기총회는 박건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총무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에 이어 임원 선거가 진행됐다. 워싱턴교역자

회는 전직회장들의 공천으로 신임회장이 선출된다. 이날 전직회장들은 신임회장에 부회장이었던 이해갑 목사를, 부회장에 문정주 목사를 각각 공천했으며, 회원들이 박수로 인준했다. 지난회기 총수입은 \$16,819.00, 총지출은 \$15,258.59였으며, 교역자 자녀 장학금으로 \$8,100이 지원됐다.

신임 회장 이해갑 목사는 "목회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요한 기자>



워싱턴지역한인교역자회 제40회 정기총회.

제반 선교운동들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KWMC 제23차 전국년차총회

2012년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앞두고 선교대회를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하는 중대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총회는 회의와 함께 선교보고 및 특강순서들이 오전-오후에 걸쳐 진행되며, KWMC 선교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반자적 협력과 동지적 연합을 다짐하며 진지한 교제와 토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전후에 걸쳐 개최될 2011-2012년 북미주 지역별 선교대회, 한국 지역별 선교대회, 2011년 GKYM Fest(한인청년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금년 12월에 열릴 WMK-세계선교사자녀협의회(아프리카대륙 선교사자녀 연합캠프), 선교협력을 위한 세계선교원탁(World Mission Roundtable), 미전도종



KWMC 제23차 전국년차총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토론토에서 열린다.

족임양운동, ECAMM(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자와 선교사다) 운동, 2011년 한민족제의동포세계선교대회 등 제반 선교운동들에 대한 KWMC의 협력방안을 논의

하게 된다. 또한, 금년에 열린 동경 2010 선교대회, KWMA 2010 선교대회/NCOWE V, 4/14 원도우 어린이 교육선교, 2세 목회자 컨퍼런스, 미주기독교선교대회

(KAMHC)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 한편, KWMC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복음화포럼회의에도 초청받아 참여하며, 이번 총회에서 세계선교의 새로운 요구와 흐름에 대한 로잔회의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KWMC회원 및 선교단체, 북미주 지역을 방문중인 신 선교사님들의 참석을 환영하며 특별히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목회자 및 선교관심자 여러분들을 모두 초청한다"고 전했다.

교통비는 자비부담이며, 총회 참석을 위한 숙박비 등 일체의 경비는 큰빛교회에서 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kwmc.com)나 전화(845-267-4159)로 문의하면 된다.

<윤주이 기자>

뉴욕 교협 제37회기 임원진 분과위원 명단 발표

뉴욕 교협(회장 김원기 목사)가 제37회기를 이끌고 갈 임원진 및 협동총무, 분과위원장 명단을 발표했다. 임원진, 협동총무, 분과위원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10월 25일 오전 11시 뉴욕베데스다교회에서 제37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갖는다.

- <제37회기 임원진>
- △회장 김원기 목사(뉴욕 베데스다교회)
- △목회자 부회장 이종명 목사(뉴욕강성장로교회)
- △평신도 부회장 손석완 장로(스테튼아일랜드연합장로교회)
- △총무 허준목 목사(뉴욕 새생명장로교회)

- △서기 현영갑 목사(뉴욕 샘물장로교회)
- △부서기 장용선 목사(조은교회)
- △회계 이대연 장로(은혜교회)
- △부회계 안승백 목사(뉴욕은유한교회)
- △협동총무 김연규 목사(뉴욕비전교회), 양민석 목사(뉴욕한국인그레잇교회), 임재홍 목사(뉴욕예담장로교회), 지인식 목사(뉴욕제일감리교회)
- △감사 노기송 목사(새예루살렘교회), 김명옥 목사(뉴욕예은교회), 최재복 장로(뉴욕한인제일교회)
- △이사장 황규복 장로(롱아일랜드성결교회).

<윤주이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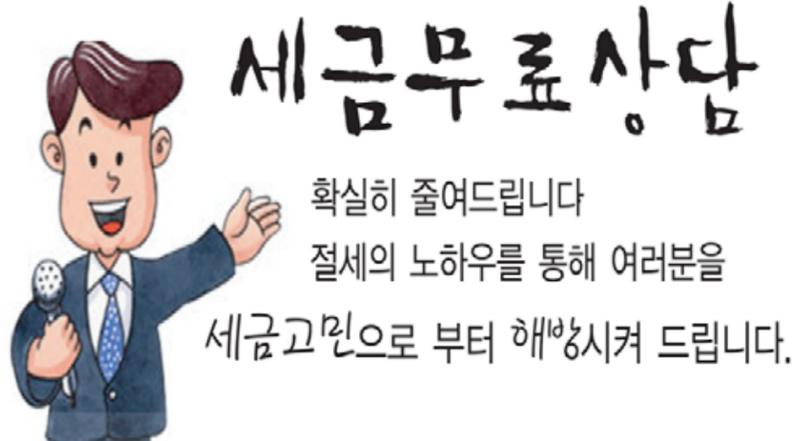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를 10년동안 하다가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을 (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 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여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 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션교회
 담임: 한현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1: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우터슨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 오전 6:00
 2부EM예배 오전 9: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앙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 90005
 T. (213) 249-9191 / F.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음)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방)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이광선 대표회장, 민주당 손 대표에 '북한인권' 강조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8일 신임 인사차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방문해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와 '북한인권'과 교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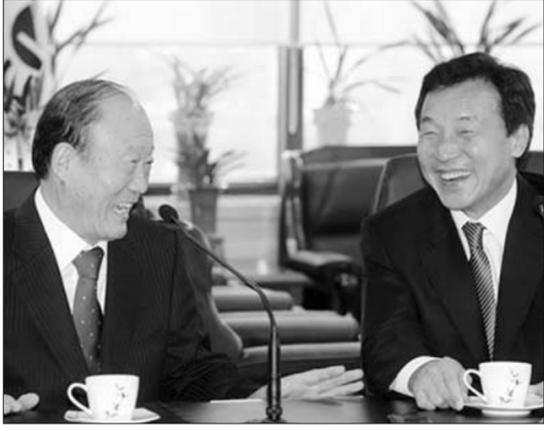
이광선 대표회장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고, 손 대표는 "바쁘실 텐데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손 대표가 한기총 역대 대표회장들의 사진이 벽면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 대표회장이 사진 쪽으로 안내해 소개했다.

자리로 돌아온 손 대표는 "종로 5가는 기독교촌이 되었다"고 말하고, "NCK에서 '교회와 사회위원회'의 간사를 했다"며 같은 시기에 일했던 인사들을 거명하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에 이 대표회장이 "그 때는 NCK가 인권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한기총이 인권을 말한다"면서, "지난 7월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왔을 때 '북한인권법'을 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했더니

사학진흥법 제정 위한 노력도 요청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맞이해 북한인권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야당이 반대해서 안된다고 했다"고 말하고, "중국에서 탈북여성 등에게서 태어나 국적이 없는 아동들이 3천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입양하는 법도 북한인권법과 함께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손 대표는 "취지는 심분 이해

한다"며 "북한의 핵개발과 세습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며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상대를 안하거나 욕만 하면서 상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완전히(북한과) 단절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교류

와 화해 협력을 통해 믿고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의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라며 "목사님들의 지적을 유념하여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회장은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되었으나 종교사학들이 건학이념 구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존 사학법을 폐지하고 '선자율 후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학진흥법 제정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철저히 엄단하되 기독교 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데 이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기총에서는 서기 문원순 목사와 총무 김운태 목사를 비롯해 인권위원장 김양원 목사와 총무협의회 회장 박중선 목사가 배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사무총장 이낙연 의원과 비서실장 양승조 의원, 그리고 김영진 의원이 배석했다. <류재광 기자>

故 황장엽 전 비서 "주 선생, 나도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주선에 교수, 인터뷰에서 황장엽 선생 전도했던 일화 밝혀



주선에 교수.

탈북자들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주선에 명예교수(86·장신대)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故 황장엽 노동당 전 비서를 전도하려 했던 일화를 전했다.

주선에 교수는 "한 번은 황장엽 전 비서가 '주 선생, 나도 아침마다 기도합니다'라고 해 그분을 전도하려 애썼던 저는 '정말이세요?'하고 반색한 적이 있다"며 "그랬더니 '주 선생께 이렇게 전화하는 게 기도가 아니겠소'라고 했다"고 말했다.

황 선생은 오전 8시 30분이면 매일같이 주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황 선생이 타계한 지난 10일, 그렇게 매일 걸려오던 전화는 오지 않았다. 주 교수는 "다

음날 오전 8시 30분이 되자, 습관처럼 시계를 쳐다봤다"며 "제가 울고 있더라"고 회고했다.

주 교수는 "황 선생의 주체사상은 인간중심 철학이라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저는 '기적'을 믿었다"며 "그분의 열살 위 누님이 기독교 신자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황 선생은 주 교수에게 "주 선생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고, 직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대웅 기자>

이동원 목사 "大사명' 힘썼지만 '한 계명' 소홀했다"

'섬김과 나눔의 행복축제'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 2010 국제심포지엄 '기독교 사회봉사와 영성'이 엑스포 셋째날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개최됐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가 '한국교회 사회봉사 기반으로 서의 영성(눅 10:25-37)'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겸한 개회예배 설교를 맡았다. 이 목사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바탕으로 교회의 사회봉사에 필요한 영성들을 언급했다.

이목사는 "한국교회는 그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 사명(The Great Commission) 완수에 힘썼지만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한 계명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며 "그것은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후 예수님이 말씀

하신 "누가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사회봉사에 필요한 4가지 영성에 대해 설명했다.

첫번째 영성은 '발견(discovery)'의 영성이다. 그는 "사회봉사의 출발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의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국제심포지엄 기조강연

이웃으로 '발견'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그간 맹목성에 빠져 우리의 이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고통과 아픔에만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이렇듯 주위를 볼 수 없는 이러한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닌, 소명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은 이웃 사랑과 봉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는 '금휼(mercy)'의 영성이다. 이는 누가 이웃인지 묻는 예수의 질문에 제자들이 '자비(mercy)'를 베푸는 자들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목사는 "금휼이란, 이웃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이라 느끼는 것"이라며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의 아픔을, 배

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의 설움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의 고통을 배려하는 영성이 금휼의 영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예수님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금휼의 영성을 평생 가지고 사셨다"며 "한국교회가 많이 전도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금휼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세번째로는 '돌봄(caring)'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

난 자를 '발견하고', '금휼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돌봤다"며 "돌봄의 영성은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기반이자 주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평생 그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할 사람들을 비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의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책임(accountability)'의 영성을 꼽았다.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그의 마음 더 깊은 곳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는 나 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목사는 "사회의 약자나 장애인 등이 사회구조의 희생자될 수 있고,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이유가 있다는 '책임의 연대성'을 가져야 한다"며 "누구를 탓하려 하기 전에 책임지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 셋째날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모습. ©이대웅 기자

려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지구촌교회의 사례를 들었다. 지구촌교회는 지역사회를 일방적으로 돕는 대신, 무엇이 필요한지 해당 지역기관에 먼저 물어보기로 했다. 이들은 '치매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라는 대답을 듣고 책임있게 이 일을 맡아 나갔고, 지금은 모범기관 표창을 받으며 다른 일들을 계속 부탁받게 됐다. 이 목사는 "누군가가 책임지면, 책임질 사람이 주위에서 계속 나타나더라"며 "한국교회가 이번 개회한 엑스포가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포를 통해 한국교회 영적 기강도가 바뀔 것"이라며 "복음의 능력과 신뢰를 회복하고 이 땅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설교를 마쳤다.

이후 손인용 목사(엑스포 상임대회장)의 환영사와 오카모토 에이치 교수(일본 기독교사회복지학회)의 격려사 이후 김동배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심포지엄이 계속됐다.

<이대웅 기자>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 [리더십 50인] 잠실동교회 백광진 목사

“성도의 자살 막으려면 신과 인간의 간극 좁혀야”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한다. 정세 혹은 후퇴하고 있는 성장세, 자꾸만 들러오는 부정적 소식들,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 팽배 등 총체적 난국은 미래 한국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저마다의 영성과 철학으로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특별히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전하는 리더십 50인을 만나 그들의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듯했다. 웃어야 할 때, 딱 그만큼 웃었고 감정은 넘치는 법이 없었다. 설교도 그랬었다. 극도로 절제돼 있다는 느낌. 읽고 읽으면서 고치고 또 고쳤을 것이다. 잠실동교회 백광진 목사는 그 자신만큼 정돈된 집무실에서 기사를 맞았다. 그런 그에게 웃으면서 첫 질문을 건넸다.

-혹 완벽주의십니까.
“그래보이나요(웃음). 글씨……, 완벽하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항상 주님을 닮으려 노력하는 거죠. 그게 완벽주의인가. 하하”

-교인들이 어려워하진 않나요.
“엄격하다는 건 어디까지나 나 자신에게 뿐이고 남을 대할 땐 그렇지 않죠. 교인들과도 스스럼없이 지내는 편입니다. 기자님은 제가 어렵나요?”

물론 아니라고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듣기에 편했고 무엇보다

자상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눈빛과 태도는 지난 15년, 한국교회의 담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비로소 얻게 된 것이었다.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제 목회를 한 단어로 말하면, 셀입니다. 셀 목회죠. 80년대 미국 유행길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좀 생소하기도 했고, 한국의 소그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매우 궁금했어요. 한 교수님으로부터 그 의미를 전해 들었는데, 교수님 설명 중에 ‘위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아, 했어요. 뭐랄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 이랄까. 암튼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왜 그런 충격을 받으셨는지요.
“단어 뜻 그대로죠. 권한을 넘겨준다. 특별할 건 없었지만 제겐 매우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목회는 그저 목사만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셀’(Cell)이라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셀 리더에게 목회의 일정 부분을 위임한다는 것. 참 신선하면서도 획기적이었죠. 제 목회에 있어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셀 목회는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처음 셀의 개념을 알고 난 후, 이것을 바로 적용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교회를 개척했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여 집사님을 포함해 모두 네 명에서. 그런데 교인이 어느새 20명으로

늘더군요. 교인들 스스로가 셀을 중심으로 단합하며 엄청난 열정을 보였죠. 정말 살아서 증식하는 세포처럼. 왜 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절감했습니다. 급기야 교인들이 제게 교회 건물을 사자는 제안까지 했어요. 그 때만 해도 미국에서 자기 건물을 가진 한국인 교회는 드물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구입했죠. 이런 게 셀이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잠실동교회 부임 후엔 어땠습니까.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다. 교인들이 셀이라는 단어에 좀 생소했을 뿐이지 그 취지와 의미에 있어선 전적으로 공감을 했으니까요. 처음 몇 해, 적응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어느덧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그저 예배에만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은혜만 받는, 그런 소비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신의 것을 나누는 생산자로 거듭났다고 하면 맞는 표현일까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있었죠.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셀 목회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을 잠실동교회에 적용하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유지돼 왔던 교회였고, 성경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으니까요. 기도하다 결국 내가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결심까지 했었죠.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서 이 셀 목회를 적용하길 원하신다면 아무 조건 없이 교회를 떠나겠다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절 말렸습다. 교회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실동교회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도 한참을 더 걸어야 할 거리에 있었다. 그렇다고 교회가 대로변,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단번에 교회를 찾는 게 쉽지않은 않았다. 물어 물어 찾아간 교회.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회로 향하는 길을 가리켰다. 기분이 묘했다. 묻는 사

만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비록 8명뿐이었지만 그들이 탄 방주에 구원이 있었듯, 이 시대 기독교인의 수가 줄고 그 영향력이 작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기 때문이죠. 그들로 인해 다시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잠실동교회 모든 교인들도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구요.”

-그래도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연예인, 기업 총수, 또 얼마 전엔 자칭 ‘행복전도사’라는 사람까지 자살을 택했죠. 물질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가 이걸 말해야 합니다.

신론(神論)과 인론(人論)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 이 둘 사이에서 타락과 구원, 종말 등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나오죠. 하나님을 말하면서 인간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인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이 둘의 사이가 너무 먼 것 같아요. 과연 새 생명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신론과 인론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인터뷰가 끝났다. 긴장이 풀렸는지, 백목사는 대화 중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녹차를 그제야 들었다. 녹차를 마시기 전 기도하는 그 잠깐의 순간. 지금까지 그가 한 말보다 더 깊이 기자의 속을 파고 든다.

노아의 가족은 고작 8명뿐이었지만 그들이 방주를 지었고 그곳에 구원이 있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임이 분명하다.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 백 목사를 보며 따라 웃었다. 그 믿음이 전염된 듯 했다. “행복한 목회자로 살 겁니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럼 교회도 행복해지겠지요.” 백광진 목사는 미국 트리니티대학교와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하고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장로교회를 개척해 7년간 목회하다 지난 1996년부터 지금의 잠실동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 중이다. 현재 워싱턴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객원교수이자 송파구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있다.

(김진영 기자)



람마다 교회를 알다니, 교회가 점점 잊혀가는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는 말이 많습다.

“어느 신학자는 몇 년이 지나면 기독교가 급격히 쇠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처럼 교회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아요. 안타깝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돌파구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힘들고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을 때 방법은 하나,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어두운 밤, 산 속을 헤매는 누군가가 결국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 쉽지

자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 자체가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최근 자살한 유명 연예인들도 알고 보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고 하면 나라도 그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동안 교회가 인간의 내면을 살피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자살한 연예인들은 소위 ‘스타’들이 아니었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가졌으면서도 왜 그들의 삶은 불행했을까요. 대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질적으로나 표면적으로 평균 이상의 삶을

중고생,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 위험 수준

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2008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등

학교 4백곳의 중1-고3 학생 총 7만 5천 2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우울감을 경험한 중고생은 38.8%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34%, 여자가 44.3%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우울증 경험이 더 많았다.

동 기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는 중고생은 18.9%였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학생은 전체 4.7%로 조사됐다.

김춘진 의원은 “학교 학생들의 우울증과 이로 인한 자살 충동은 위험수준”이라며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학교 수업 중 가장 신학답다고 여겨졌던 과목은 조직신학이었습니다. 조직신학이란 성경의 여러 곳에 퍼져있는 신학적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의 각론적 학문입니다. 조직신학 중 인간에 관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인간론이라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학문인데 조직신학에서 인간에 대해 공부하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신학의 중심에 자리 잡은 조직신학에서 공부하는 인간은 참 오묘한 존재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절대적 대상임을 발견했습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운 목회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무척이나 흥미로웠습니다. 학부를 졸업하면서 이정도면 사람에 대하여 통달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너무도 자신만만했지만, 목회의 현장에서 접하는 사람은 여전히 새로운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에 대해 고민합니다. 심리학적 개념으로 신학적 개념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내 접어버려야만 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양파껍질처럼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고체계로 이루어진 존재가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상담학을 공부할 때 내면을 파악하려고 배웠습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모든 언어와 행동은 내면의 자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한 사람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양의 대상인 성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내면에 이중의 창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들여다보면 더 깊은 내면을 가리고 있는 또 하나의 창, 그리고 드리워 있는 내면의 커튼... 목회는 또 다른 창에 드리워 있는 내면의 커튼 너머 자리 잡은 성도의 진정한 자아를 파악할 때만 감당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인 사람... 그래서 목회는 영광스럽습니다. 동시에 목회는 사람의 내면을 읽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고도의 종합기술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김세환 칼럼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어렸을 때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즐기차게 빨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과학박람회"가 열려서 많은 학생들이 "신(新) 문물" (?)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미경"이었습니다.

사물을 몇 백 배 이상 확대시키는 능력을 가진 현미경을 보려고 시골 학교 촌놈들이 마치 식사 배급을 기다리는 "거지새끼들" 마냥 운동장에 길게 늘어섰습니다.

얼굴에는 비집이 피고, 머리는 기계충이 먹어서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다 뜯긴 개구쟁이 놈들, 콧물이 흘러내리다가 허영계 굳어서 입술 위에 큰 도

량을 만든 아이들 그리고 머리를 양 갈래로 따고 검정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콤비로 맞추어 입은 여자아이들이 두 줄로 길게 서서 곧 있게 될 현미경과 망원경 등 서울에서 내려온 과학 장비들을 구경하려고 상기된 얼굴로 재잘 재잘대며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데이빗 카퍼필드(David Seth Kotkin)의 "마술쇼"를 관

지 않았습니다. 한 동안 시간만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을 박박 씻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존심 상했던 것은 함께 과학실에 들어갔던 당시 한 미모(?)하던 나의 영원한 짝사랑 "현미"에게 나의 더러운 손이 포착된 것입니다. "아! 쪽 팔려!"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그 아이만 보

자의 죄악 된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모골이 송연합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미경으로 다 잡아내신다면, 과연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충고하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당하는 사람이나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똑바르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다른 사람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다가는 훗날 하나님의 현미경 앞에서 큰 낭패를 보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 겸손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해 봅니다.



하나님의 현미경

람하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과학실 밖에서 있다가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들어간 저는 난생처음 "현미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담당 선생님이 유리판으로 특수하게 설계된 넓은 현미경 렌즈 위에 저의 "땀국물"이 잘잘 흐르는 손을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유리판 위에 올려놓았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벽에 설치한 스크린에 온갖 병균들이 득시글거리는 손이 등장한 것입니다. 수풀들이 무성한 정글 같은데, 그것이 제 손바닥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혐오스러운 벌레들이 스물 스물 거리며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손가락을 빨

면 피해 다녔습니다. 40여 년 전의 어느 시골 강촌 학교에서 그려진 저의 풋풋한 유년기 초상화입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가끔 그때의 영상이 되살아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 당장 당신의 현미경에 나를 비추어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주의 종"이라 칭하고, "경건질"을 떨다가 사람들 앞에서 정나라 하 게 들 어 날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지금 국무장관 클린턴 여사는 브뤼셀에서 NATO 미팅에 참여하면서 모든 국제정세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지난 160여 일 동안 60개국을 넘는 나라를 다니며 집무한다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슈퍼우먼임이 틀림없다.

힐러리의 슈퍼파워는 지금 만인지상 일인지하의 국무장관의 파위가 아니라, 백악관 시절 남편과 인턴과의 스캔들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녀의 자서전에도 썼듯이, "내 인생의 가장 충격적이고 황폐하고 외로운 시간"을 극복한 모습에서 이미 오래 전에 입증되었다 할 수 있다. 그 후 뉴욕

시코에서 벌어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희생당한 자기 아들을 찾아 달라는 한 엄마가 또 한 엄마인 힐러리 여사에게 외치는 눈물어린 간청에 지그시 어금니를 무는 단호한 모습..... 지극히 평범한 한 엄마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듯한 강인한 리더십까지 엿보

나라라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미국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만약 나에게 "교회에 대한 안티감정이 고조되는 작금에 왜 목회를 하나?"고 묻는다면, "그래도 나는 믿는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침 꼭두새벽부터 일어난다. 앵커우먼이 힐러리 장관과의 특집인터뷰를 마치고 마지막 '수많은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작금에 국무장관으로 집무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이때 힐러리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미국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시코에서 벌어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희생당한 자기 아들을 찾아 달라는 한 엄마가 또 한 엄마인 힐러리 여사에게 외치는 눈물어린 간청에 지그시 어금니를 무는 단호한 모습..... 지극히 평범한 한 엄마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듯한 강인한 리더십까지 엿보

나라라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미국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침 꼭두새벽부터 일어난다. 앵커우먼이 힐러리 장관과의 특집인터뷰를 마치고 마지막 '수많은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작금에 국무장관으로 집무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이때 힐러리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미국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나라라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미국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주 상원의원에 도전하여 당선되고, 현재 국무장관으로서 차기 대권에 최종 여성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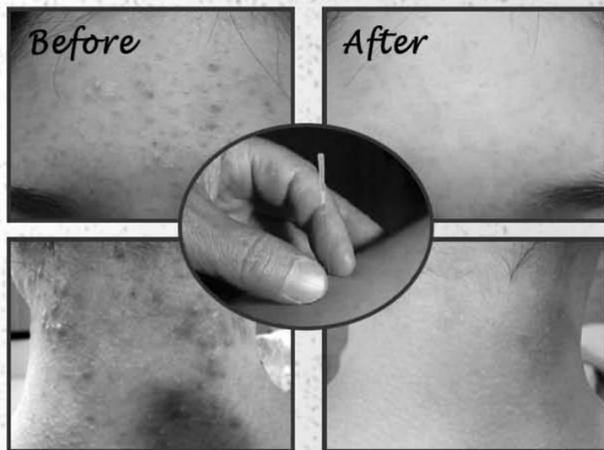
힐러리 장관은 ABC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온 세계의 골칫덩어리 탈레반이 협상의 자리에 나올 것이라는 희망어린 스피치를 자신 있게 말한다. 맥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닥터살롬칼럼



살롬 김 박사
셰퍼드대학교

크로스코드 (3)

우리는 지난 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비밀을 암호화하고 그것을 해독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성경의 암호화와 암호 해독방식은 그것만이 아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른 암호 해독법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엠마오로 가는 길, 암호 해독의 길

우리는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야 한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직접 암호 해독법을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열두 제자 중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가깝게 따르던 글로바라는 제자와 다른 제자 하나가 엠마오 마을로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일요일 아침은 지난 금요일, 십자가 사건이 있던 날 만큼이나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막달

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까지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당황하며 길을 가던 중에 한 남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으며 슬픔의 뉘누리를 늘어놓는다. 이에 대하여 그 남자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리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누가복음 24:25-27).

그 제자들은 설명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제자들은 마침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눈이 밝아져, 그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 보았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은 가슴이 벅차 단숨에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참이었다.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간 귀로 듣고도, 눈으로 보고도 이해하지 못함으로 암호가 되었던 십자가의 비밀을 다음과 같이 풀어 주신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

사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누가복음 24:44-48).

지금 우리의 관심사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게 하기 위하여 알려 주신 암호 해독법이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암호를 푸는 방법을 알려 주신다.

예수님의 암호 해독법
눈으로 보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암호가 되어 버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예수님의 암호 해독법은 이러하다. 모세의 글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른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

고 있는 것을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구원자의 증거, 복음의 전파가 이미 예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약의 말씀과 사건들이 예수님을 직접 언급하며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표인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그 기록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대입하여 더 큰 암호를 해독해 내야 한다. 물론 기계적인 대입만으로는 그 암호가 술술 풀리지 않는다. 여기

모셨음이라”(이사야 34:16). 성경의 역사는 막연하게 반복되지 않고 예견, 예시, 예표된 이후 완성되는 대칭구조를 취한다. 여기엔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 역사 통치 섭리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방법은 미신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짝을 가지신다.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짝을 가지고 예언, 예표를 하고 그 성취된 짝을 찾으려 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와의 입이 명하

구약만 연구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원자를 모른다. 그러므로 구약이 없는 신약, 신약이 없는 구약은 아쉬운 반쪽짜리다. 구원의 큰 그림은 둘을 합쳐서 볼 때 확실해진다.

대칭의 중심점, 십자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십자가를 대칭적 목적지로 암호화 되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비밀 암호들의 문이고 예수님은 그 열쇠와 같다. 예수님 자체가 암호일 뿐 아니라, 십자가의 7연은 예수님에 대한 암호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며 그 자체로 암호문이다. 암호는 뜻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의미를 알 수 있는 일종의 ‘코드’이다. 암호를 풀려면 해독법에 근거하여 성경을 읽어야 한다. 암호를 일상어로 취급하여 풀려면 안 풀린다.

오래된 암호, 친숙한 해독법
이 말씀들은 지난 2000년간 늘 거기에 있었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성경을 암호로 보는 것이고, 이 암호성을 심각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 복음서 기록자들이나 바울 사도 등 많은 이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여 성경의 많은 암호들을 해독해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암호들이 우리의 해독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들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자의 숲을 빠져 나오면 산과 산맥 뿐 아니라, 대륙과 대양, 지구와 태양계, 은하계와 우주,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

예수님의 암호 해독법

에는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다. 그러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나서는 성경의 가장 깊은 비밀의 해독은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짜으로 본 역사, 대칭으로 푸는 암호

해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칭되는 짝을 찾아 대입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이 짝을 염두에 두고 이곳 저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암호 해독을 위해서는 짝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비밀이기도 하다.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시고 그의 신이 모아주신 짝을 찾아 살피면 그 대칭의 짝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성경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예언의 조각들을 잘 모아 정확한 곳에 배치하면 하나님 섭리가 가진 비밀을 설명하는 선명한 모자이크가 된다. 이렇게 서로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이 만나 암호가 해독되는 것이다.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시대별로 혹은 주제별로 나열하면서 결국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완성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암호 해독법을 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온전히 알 수 없다. 동시에 예수님을 이해 하지 못하면 구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종환 칼럼



이종환 목사
두나미스 미니스트리 대표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월리암 딘 장군이 북한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어렵게 마련한 조그

정직성이 없이는 어떤 지도자도 신뢰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도덕적 수준은 어떤 조직의 성장의 본질입니다. 고대 희랍 초기 소크라테스는 “위대함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삶

마한 종이족지에 그는 아들로 하여금 세상은 지혜를 단 한마디의 단어로 써 놓았습니까. 딘 장군이 선택했던 한마디의 말은 ‘정직성’(integrity)이었습니다.

대한 첫 번째 열쇠는 속과 겉이 같은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직이란 건전한 도덕적 원리의 자질입니다. 보석의 아름다운 광택을 보려면 깎아 내고 다듬어야 하

듯 사람의 정직성도 끊임없는 자기 노력과 내적 수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거룩과 정직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결정적 요소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와 악의 밑바탕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요즘 가정과 학교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대

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모두들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 할 때만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직함의 능력배양입니다. 한국 교회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치명적 병인 부정직을 오늘 내가 먼저 치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위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그리스도인이 먼저 깨끗해져야 세상이 깨끗해진다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어떤 사회도 그 시대 그 사회의 종교 이상 발전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상으로 발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적 삶의 실천입니다. 정직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져기를 기도합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는 미스티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워터-메리클론도상가 2층

월서+웨스턴 코너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이밍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엔저스 프라이밍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판매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치과의사와 보철 전문의가 최상의 임플란트 시술 및 보철을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을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무통 임플란트 | 잇몸 보개 없는 임플란트 | *악기 착용을 보철 전부터 | *악기 착용을 임플란트 전부터

수면 임플란트 (V Injection) | 드림 없이 씹는 임플란트 | 연세 치과대학 졸업 | 보스턴 임플란트 협회 회원 | 보스턴 치과대학 졸업 | 치과 전문

합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 PRP & PRF 시술 (임플란트 주위 골 생성 촉진)

오른기법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특별할인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데 | 보철치료 | 신경치료 | 구강외과 | 보철환영: PPO, HMOA
치주치료 | TMI (턱관절염, 소골절) | TEL: 714, 638, 4042 / 714, 638, 2141 (한국어)
보톡스 (주름, 근육에 의한 사각턱) | 치아교정 | 13031 Kerry St., Garden Grove, CA 92644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증권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통,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톨릭기속성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1-800-530-5660 / 1-800-711-0776

카레라이스 \$1.00 (1인당)
짜장소스 \$1.00 (1인당)
유채콩나물국 \$1.00 (1인당)
김치미역국 \$1.00 (1인당)
아미비빔밥 \$1.20 (1인당)
고기비빔밥 \$1.80 (1인당)
육개장 \$1.5 (1인당)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농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 마켓용 Gondolas | 창고용 Pallet Rack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 사이)

블라인드 캔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스탠포드 대학교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1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327-9929 213-909-5518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 (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Higher Calling 더높은 부르심!

제 3차

미주 한인청년학생 선교대회

하나님은 마지막 세대를 향한 피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미주 한인청년학생들을 부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좃아 가노라 (빌 3:14)

대회일정 | 2010년 12월 20일(월) ~ 23일(목)

대회장소 |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대상 | 18세 이상 청년 및 대학생, 유학생(영어, 한어권) 선착순 4000명

등록 | 당일등록없음 | 3박 4일 Hotel 숙박, 등록비 포함

1 차 | 11월 22일까지 \$150 (USD)

2 차 | 12월 6일까지 \$170 (USD)

마감 | 12월 13일까지 \$220 (USD)

등록방법 | www.gkym.org 에서 직접 신청 | Pay to order : GKYM (메모란에 소속단체를 써주세요)

문의 | GKYM Vision 준비위원회 사무실(KCCC USA)

1636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17

Tel : 213. 389. 5222 Fax : 213. 389. 5200

www.gkym.org E-mail : gkym2010@gmail.com



프로그램 | 전체 집회, 선택특강, 어울림축제, 선교박람회, Sports 축제, 결혼세미나, CCM, CCD 경연대회, 콘서트.....

강사 | Steve Douglass (국제CCC총재)
Miles Mcpherson (The Rock Church)
Duffy Robbins (Youth Specialties)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김동환 목사 (KCCC USA 대표)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최홍주 목사 (에브리데이교회)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김상돈 목사 (과테말라 한인교회)
김희수 목사 (샌디에고 베델한인교회)
이성현 목사 (드림 교회)
이성우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장)

Luis Bush (기독교21세기운동)
Jaeson Ma (Campus Church Network)
임현수 목사 (토론토 큰빛교회)
한철호 목사 (선교한국 상임대표)
박희민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대표회장)
박성근 목사 (LA한인침례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고승희 목사 (아름다운교회)
송정명 목사 (미주평안교회)
김혜택 목사 (뉴욕총신교회)
한기형 감독 (나성동산교회)

뮤지션 | Shane and Shane

간증 | 최경주 (프로골퍼)



주관 | GKYM 준비위원회 | KCCC USA 대학생선교회

주최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Holy City Movement

주최 | GAP (Global Assistance Partner: 협력선교회)



후원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 남가주 목사회 | 샌디에고 교역자협의회 | KOSTA | 남선협
플러선교 신학대학원 | KAYAC | HYM | CTS | CGN | KIMNET | JAMA | KCMUSA
미주복음방송 | 한국일보 | 중앙일보 | 크리스천에럴드 | 크리스천신문 | 크리스찬 투데이 | 크리스찬 뉴스위크 | 기독일보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미국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서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ISPOSITION FEE(\$400)** 를 면제해드립니다.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10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 **성능, 디자인**으로 중형차를 석권하다. 최저 가격 보장

2011 신형 제네시스



• 대형 **세단**의 중후함과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최저 payment 보장

2011년 신형 제네시스 coupe



• 한 번만 타보세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차. 만족도 보장

2011 최신형 투싼



• 보시는 순간 매료됨 갖고 싶은 귀여운 **SUV**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함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함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10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 2007 BMW (WHITE) 328i STK PZ70863 \$22,888
- 2007 BMW (BLACK) 328XI STK PP31167 \$26,888
- 2007 HUMMER (YELLOW) H3 STK P126552 \$24,888
- 2008 HYUNDAI (GOLD) ENTOURAGE STK P051414 \$18,488
- 2009 TOYOTA (WHITE) TACOMA STK P640770 \$16,999

- 매니저가 권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HYUNDAI AZERA GRAY STK P185167 \$17,888
- ▶ 2008 HYUNDAI AZERA BLACK STK P332058 \$20,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GRAY STK P046436 \$29,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SILVER STK P019812 \$28,888
- ▶ 2009 HYUNDAI GENESIS 3.8 WHITE STK P048693 \$34,888
- ▶ 2010 HYUNDAI SANTA FE GRAY STK P337186 \$21,888
- ▶ 2009 HYUNDAI SONATA BLACK STK P440119 \$13,888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15,888
- ▶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 P597224 \$14,888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22,888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함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ive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